

세계 청년 NGO 활동가들 '광주 정신'으로 뭉쳤다

5·18재단, 광주·서울서 5·18아카데미 개최...12개국서 참여 "연대·네트워크 확장...세계 민주주의·인권 뿌리 내리게 할 것"

"태국도 광주 5·18민주화운동처럼, 국가가 나서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행기정'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광주를 교과서 삼아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필 수 있도록 더욱 목소리를 높여겠습니다."

태국 출신 인권활동가 나타몬 수폰웨이(여·24·Nattamon Supornvate)는 3일 5·18기념재단이 개최한 5·18아카데미 수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타몬은 태국의 인권단체 '크로스컬처럴 파운데이션'(cross-cultural foundation) 소속 프로젝트 매니저로, 군부에 강제 연행된 실종자 조사, 고문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피해자 법적 지원, 문제의식 홍보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나타몬은 "태국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군부에 의한 국가폭력 희생자가 많은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은 적은 없다"며 "광주의 연대로부터 힘을 얻어 태국 정부가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보상하며 인권유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청년 NGO 활동가들이 '광주 정신'으로 뭉뚱 뭉쳤다.

5·18기념재단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그레이프라운지 을지로점에서 5·18아카데미 수료식을 열었다.

올해 5·18아카데미에는 스리랑카·요르단·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의 13명 활동가와 4명의 5·18기념재단 글로벌NGO석사과정(GNMP) 장학생, 5·18기념재단 국제 인턴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주일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자를 위한 연대'를 주제로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한국의 민주화운동 흐름과 이행기 정의, UN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옹호 활동 등을 학습했다. 또 광주트라우마센터, 국가인권위원회, 5·18진상규명위원회 등 단체를 방문해 사업을 참관했으며 국립5·18민주묘지 등 5·18사적지도 답사했다.

활동가들은 5·18을 통해 연대와 '이행기정'의 의미를 배우고 자국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5·18광주를 교과서로 삼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점, 전일빌딩245와 각종 출판물·사진 등 5·18 당시의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보존하고 있는 점 등을 본받아 자국에서도 관련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말레이시아 국적의 아벨 비자야쿠마르(30·Abel Vijayakumar)는 "광주는 여느 나라와 달리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인권 관련 발언을 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참여해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5·18아카데미에 참가한 청년 NGO 활동가들이 3일 서울 그레이프라운지 을지로점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아벨은 인권·평화 연구단체 '셰이프 시(Shape sea)', 난민 및 수용 인권단체 '호스트 인터내셔널(host international)' 등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로힝야 난민과 유고슬라비아 전쟁 피해자, 스리랑카 내전 인권유린 피해자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벨은 "5·18민주묘지에 운동에 앞장선 일부 활동가뿐 아니라 일반 피해자, 광주시민들까지 함께 안장된 것을 보고 감탄했다"며 "다른 나라에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는 금방 잊혀지게 마련이라는 생각이 팽배한데, 광주는 그 반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처럼 민중이 한 목소리를 내면, 로힝야의 경우처럼 세계 난민 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나"며 "갈 곳 없는 이들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솟는다"고 했다.

요르단 출신으로 국제 인권단체 '골(GOAL)'에서 활동 중인 루아 알후다리(여·Ruua Alkhudari)도 "5·18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의 NGO활동가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여기서 쌓은 연대와 네트워크를 확장해

세계 각국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5·18아카데미는 세계 각국의 청년 NGO 활동가를 초청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4년 광주아시아인권학교에서 출발해 세계 각국의 젊은 인권활동가들을 초청해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이론 및 네트워크, 현장실습을 겸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광주정신, 대동정신의 가치를 국외 활동가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 큰 이유는

광주·전남 '개 진료비' 10배 차 임대료·장비·직원수 등 영향

광주지역 동물병원의 개 초진비 평균은 1만 176원이고, 전남의 경우 9671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개 초진비 최고(1만 5000원)와 최저(7700원)의 편차는 2배 가량이지만, 전남지역은 6.6배(최고 2만원, 최저 3000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개와 고양이에 대한 진찰(초진·재진)·상당료, 입원비, 백신 접종비(종합·광견병·켄넬코프·인플루엔자), 엑스선·전혈구 검사와 판독비 등 총 11개다.

광주지역 동물병원의 개 상담료는 최고가 2만 2000원에 달했고 최저는 3300원이었다. 개 입원비는 대형견(14만 4000~3만 3000원), 중형견(12만 1000~2만 8000원), 소형견(8만 8000~2만 7500원)에 따라 편차가 발생했다.

각종 백신과 엑스레이 검사의 경우 2배가 약간 넘는 편차를 보였다.

전남지역 동물병원도 상황은 비슷했지만 일부 항목 편차는 광주보다 컸다. 1.8배(최고 1만원, 최저 5500원)를 보였던 광주지역 동물병원 개 재진 비용이 전남에서는 편차가 10배(최고 2만원, 최저 2000원)에 달했다.

개 종합백신의 경우 광주에서는 1.9배(최고 3만 8000원, 최저 2만원)의 편차였지만 전남지역 동물병원에서는 4.5배(최고 4만 5000원, 최저 1만원)에 달했다. 엑스선 촬영·판독비도 광주는 2.75배(최고 5만 5000원, 최저 2만원)였지만, 전남은 4배(최고 6만원, 최저 1만 5000원)로 나타났다. 엑스선 항목은 화순지역 동물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이처럼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등을 고려해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세한 내용은 진료비 현황 공개 홈페이지(www.animalclinicf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11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간담회

광주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 행사 미개최(8월 2일자 광주일보 6면) 입장을 보인데 비판이 잇따르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시는 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 4곳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관련해 오는 1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리는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받은 시민단체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광주나비 등이다.

광주시는 "간담회는 기림의 날 행사와 관련해 시

민단체에 전화로만 참석여부를 조사한 데 대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행사 개최 여부와 개최한다면 그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담회가 기림의 날을 3일 앞두고 열리는 점에서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국인(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기림의 날 개최 논란에 따른 해명성 간담회에 불과하다"며 "3일 전에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행사가 과연 진정성과 완성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가마솥 더위'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에 다음주에도 펼쳐질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티벳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등 덥고 습한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광주·전남 4일 낮 최고기온은 33~36도를 보이

고, 5일 아침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34~36도에 분포해 열대야와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10일 동안 이어진 폭염경보가 다음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기가 불안정해 5일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릴 경우에도 짧은 시간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려 온도가 떨어지기보다는 습기를 더해 '한증막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광주 유행성각결막염 주의보

광주시는 3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잠잠했던 유행성각결막염이 방역정책 완화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광주시가 안과 4곳을 대상으로 감염병 표본감시에 나선 결과, 2023년 29주(7월16일~22일)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은 7.2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명 보다 세 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연중 발생하지만 주로 여름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안과질환이다. 잠복기는 5~14일이며, 감염되면 눈곱, 충혈과 함께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있고 눈부심과 눈꺼풀이 붓는 증상을 보인다. 염증이 생기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수건, 침구, 세면기 등 개인용품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수영장 물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매년 가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임진석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장은 "환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화와미래남원 안업도시남원

생태계 악당 '붉은귀거북'

오줌싸개 '꽃매미'

물 속의 먹보 '배스'

2023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백두대간의 침입자들

눈두렁 말뚝쟁이 '미국가재'

사고몽치 '뉴트리아'

연못의 골목대장 '황소개구리'

2023. 07. 28(금) ~ 8. 27(일) 매주 월요일 휴관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문의사항 : ☎ 063-620-5752~4